

기획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19>

유럽편 '도시와 철도역'



驛舍는 도시의 歷史... 세대 아우르는 소통의 광장

- 1 프랑스 파리 리옹역 앞의 기차시간을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한 노천카페들이 차지하고 있다.
- 2 철골과 유리로 디자인된 네덜란드 레이던센터역. 넓은 광장과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 젊은이들이 기차역과 조화를 이룬다.
- 3 룩셈부르크역 앞 광장은 각 국가에서 모여든 여행객들로 평일에 북적거린다.
- 4 네덜란드 덴 하그 중앙역의 내부
- 5 최근 지어진 영국 런던 스타포트역 내부
- 6 프랑스 파리 이스트역 내부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려는 민간사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의 수익을 얻으려 할까. 본격적인 고속철도 시대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장 서 경쟁하고 있는 것이 철도역에 '민간자본 끌어들이기'이다. 민간사업자는 수익창출을 무엇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고속철뿐만 아니라 고속·시외버스,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모든 교통기관을 묶으면서 늘어나는 유통인구와 그들의 호수머니에서 얼마가 나올 지를 추정해 투자액을 결정할 것이다.

투자 원금 회수기간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는 철도역 주변이나 크게는 도시 전체와는 상관 없이 상업시설, 호텔·컨벤션시설, 그 밖의 시설들을 집적시킬 것은 자명하다. 철도역의 하루 유통인구를 5만명, 1인당 소비액이 3만원, 소비액 중 순이익이 10%라고 하면 하루 수익은 1억5000만원이다. 산술적으로 원금인 5000억원을 회수하려면 333일, 즉 10년이 필요하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수익까지 포함하면 시설은 과도할 수밖에 없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서비스는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어디까지나 '추정'되는 유통인구와 소비액은 과장될 수 있어 외부자본을 투입한 철도역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도시의 미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먼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유통인구를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늘어나는 유통인구에 맞춰 투자를 하느냐이다. 또 기차역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라는 교통기관 본연의 기능으로 한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상업 및 전시·컨벤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중세 건축물 그대로 보존시켜 주변 변화상도 전시
기차역 내부는 사람·물자 수송 등 교통 기능 충실
편의시설 집적된 역 앞 광장, 그 자체로 관광명소

배치해 수익창출 기능까지 포함할 것인이다.

유럽의 기차역은 도시마다 특징이 있지만 대규모이며 웅장한 스케일이 아닌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며 그 기능에 맞게 적재적소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기차역 내부에 사람을 머물게 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기관의 본래 기능인 사람과 물자를 원하는 곳에 이동시키면서 역 자체가 아닌 그 주변을 북돋게 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레이던(Leiden)의 경우 평일에 불구하고 유리와 철골로 디자인된 역 앞 광장은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이들 젊은이들은 자전거나 버스를 통해 역에 오고 기차시간을 기다리며 책을 읽거나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었다. 역 앞의 거대한 자전거주차장, 가로등과 가로수, 광장 앞으로 펼쳐진 3~5층 규모의 정연한 건축물 등과 역은 마치 하나의 단지처럼 조화를 이뤘다. 광장을 지나 배치된 노천카페, 상점 등에는 손님들로 가득한 것은 물론이다.

덴 하그 중앙역 주변에는 역 주변의 변화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과 건축도면 등이 전시돼 있었으며, 역내에도 유럽 중심역임에도 불구하고 30여개의 소규모 상점들이 1층과 2층에 배치돼 있었을 뿐이다.

룩셈부르크 역과 프랑스 메츠(Metz ville)역은 중세건축물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으며, 역내에 설치된 스테인드글라스 장식품이나 예술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역 앞 광장은 주변의 시설물과는 전혀 디자인이 다른 가로등이나 벤치, 공중전화 박스 등이 배치돼 있어 그 주변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남녀노소, 각계 각층이 모여들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영국 에딘버러역도 2층의 중세건축물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유지하면서 역내는 개찰구와 매표소 이외에 다른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규모가 큰 글래스고 퀸 스트리트(Glasgow Queen Street) 역에는 관광안내소, 카페, 선물점포 등이 즐비했으나 1층에서 곧바로 기차에 탈 수 있도록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파리

이스트(East)역과 리옹역에는 예술의 도시답게 파리시민혁명을 상징하는 대형 그림 등이 걸려 있었으며 외관 역시 산업화시대나 중세시대의 디자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유럽 대표역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역내는 유럽 곳곳으로 향하는 탑승구가 어지럽게 배치돼 있었으며, 수 백여 개의 노선 덕분에 기차시간을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한 식당, 편의점, 선물가게 등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해 있다.

영국 런던에서 에딘버러로 가는 기차 안에서 취재팀은 당연한 듯 도시락과 와인 등을 꺼내 삼삼오오 모여앉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드는 영국인들을 만났 수 있었다. 기차역은 기차를 타는 승객을 위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기차 안에서 승객들은 자신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여행을 앞둔 들뜬 마음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기차역은 역 자체가 아닌 광장과 주변 거리로 사람들을 내보내고 모이게 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도 유럽 기차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발전연구원 김광욱 박사는 "유럽의 기차역은 모두 도시의 광장이자 소통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흠여지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있었다"며 "지금 광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도시의 기차역이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향후 기차역 자체나 혹은 그 주변 개발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